



화성 용주사 '효축제'



◇9월20일 열린 '제1회 화성 용주사 승무제'는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의 유일한 행사를 축제다.

# 孝하면 心풍성 해져요

부모-자식 간의 천륜을 어긴 범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구닥다리' 취급 받을까 망설여지는 현대에도 효(孝)는 여전히 유효한 덕목일까?

풍랑에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으로서의 자부심보다 '뒷방 노인네' 소리에 섭섭함을 느낄 때가 더 많았던 '어르신'들이 모처럼 가을 축제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에 위치한 용주사(주지 정락)가 9월 20일 개최한 '제1회 화성 용주사 승무제'는 하고많은 우리나라의 축제 중에서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의 유일한 축제라 할만하다. '효행본찰' 용주사와 화성시가 공동 주최하고 용주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1천여 명과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 순화규 경기도지사 내외, 우호태 화성시장 내외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해 열여섯 개의 의미를 되새겼다.

여느 고향과 달리 차도 열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 용주사는 조선왕조 임금 중에서도 효자로 소문난 정조 임금의 효심이 깃들었다. 보경 스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 설법을 듣고 감동 받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재의 '용릉(隆陵)'으로 옮기고 그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願刹)로 세운 '효찰(孝刹)'인 것이다.(1790년) 또한 시인 조지훈이 19살 되던 1939년 어느 이름모를 스님이 추는 승무를 보고 저 유명한 시 '승무'를 지은 곳이기도 하다. 조지훈보다 150여 년 앞선,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자주 이곳에 들렀던 정조도 승무를 보지 않았을까? 정조의 효심이 2백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승무제'로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총 3부(백수연-승무제-산사음악회)로 진행된 이날 축제는 어르신들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백수연(白壽宴, 백수는 아흔아홉살을 일컫는 말로 '百'에서 '-'을 빼면 99가 되고 '白'이 되는 데서 유래한다)'이 열렸다.

백수연은 정조가 화성으로 행차해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열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궁중 잔치(筵設)에 따라 그 형식과 격식을

재현한 행사. 회갑 이상 된 어른의 생신에 자제들이 술을 올리며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수연(壽宴)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현수가장례(顯壽家長禮)'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70-80살이 된 노인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직접 지방어를 하사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다는 기록도 전해온다.

이날 백수연에는 허연년 할머니(105세) 등 화성시에 거주하는 99세 이상 어르신 16명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7명이 참석했고, 우호태 화성시장 내외가 아들·딸이 돼 꽃을 바치고(獻花, 헌화), 술을 따르고(壽酒禮, 수주례),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杖, 궤장)를 올렸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김복련 선생과 그 문학생들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을 쓰고 화성재민정류 승무를 선보였다. 승무는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내용을 춤으로 엮은 것. 순화규 경기도지사는 "시를 들을 기회는 많지만 승무를 직접 볼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라며 "승무제"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는 산사음악회로 이어졌다. 불자 개그맨 김병조씨의 사회로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국악관현악단 오느름(대표 김희경)의 연주와 국악인 김성녀(중앙대 교수), 경기민요 이수자 최수정씨 등이 출연해 한껏 흥을 돋웠다.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단을 위한 '신모듬' (박범훈 곡)으로 어울림의 장을 연출했다.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정조는 어머니의 회갑 잔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화성과 그 인근의 노인, 결혼 가정,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소금을 나눠주는 등 각계각층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승무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승무제'를 화성시의 지역 축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권형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우호태 화성시장 내외가 어르신들께 술잔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있다.



◇제2부 승무제의 한 장면.

효·불교 어우러진 유일한 축제  
75세 이상 1천여 어르신 한자리  
백수연,승무제로 만수무강 기원  
정조의 효심,이웃사랑 살아난 듯

## 반야심경반지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외부에 각인된 반야심경반지  
반지내부에는 '옴'자가 각인  
18K Gold 폭 약 8mm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외부에 각인된 반야심경반지  
반지내부에는 '옴'자가 각인  
은92.5% 로듐도금 폭 약 8mm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내부에  
각인되어 있고 외부에는 연꽃을  
형상화 한 문양이 새겨져 있음.  
18K Gold 폭 약 8mm

■ 농 팀 131-01-368761 예금주:(주) 엑스피아 금액: 198,000원 ■ 인터넷주문 http://www.xpia.com으로 오시면 새콤이매지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엑스피아 문의및신청전화 ☎ 031-382-3719, 080-382-3719